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의 장' 정례화

광주시 매월 넷째주 수요일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
다양한 주제 자유롭게 논의
제시된 안건 처리결과 통보



조인철(가운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이 최근 지역 대표 문화시설 중 하나인 동구 소재 전통문화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문화도시'를 선언한 광주시가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한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을 운영한다. 개방의 날은 형식적 만남이 아닌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참여자와 실무진간 사전 의견검토나 조율 없이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한다.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참여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19일부터 23일까지 문화도시정책관실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문화예술 특별주간'을 운영하고, 문화거버넌스 구축, 문화생태계 지원, 문화향유 서비

스, 미래 문화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을 발표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장은 "그동안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 만났지만 현장 의견 상 깊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항상 아쉬웠다"며 "이번 문화경제부시장실 개방의 날 정례화를 통해 많은 분들 받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시장은 지난 2월부터 문화예술단체 원로 간담회, 게임개발 청년기업 방문, 코로나 19 대응 우수기업 방문 등 문화예술과 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 참여해 볼까

광주 생물종 기록 과학 활동
시,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광주시가 호주, 캐나다 등 세계 환경 선진 주요국 등에서 진행중인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를 열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기록하는 '2021 광주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식물이 빠른 속도로 멸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우선 탐사캠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공고일(15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고 생물 다양성 탐사 추진 등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9층 기후환경정책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환경정책과(062-613-414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구체적 탐사캠프 일정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생물 다양성 탐사캠프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공원에서 해마다 열고 있으며, 국내에선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와 서울, 경기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9~21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서
인권단체 직원·공무원 등 대상

광주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마을 대표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권 관련 단체 직원, 인권교육활동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본이 되는 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을 집중 교육한다. 인권교육 활동가들의 지

도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평등권·자유권의 이해 등 기본과정,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이 강사와 토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심화과정까지 통과한 이수자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인권교육 강사로 기관에 추천하는 등 인권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순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모든 시민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하는 인권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ESG 경영 선포식.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16일 공사 대강당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광주도시철도 ESG 경영 선포식'을 갖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책임강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광주 복지정책·서비스·통계 한눈에...플랫폼 구축

광주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광주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현장 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 서비스, 통계 등 정보를 통합해 제공

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복지 플랫폼은 8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업용 드론 운행 교육·청년 창업농 지원 호응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내달 4일까지 교육생 모집

직거래장터 포장 디자인 등 지원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는 15개 지역 농·축협에서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등 농식품을 순회 수집해 판매하는 도·농 상생형 장터다.

오는 11월까지(휴식기 8월 제외) 매주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4시30분) 농협중앙회 광주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 경영 실습생의 유통·판매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과 농산물 판매 방안을 협의하고, 출하 농산물의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농산물은 청년창업농이 지난달 심은 '미니오이'다. 지난주부터 수확해 지역 로컬푸드와 타 지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인큐베이터 농장은 지난해 광산구 연산동 일원 5605㎡에 스마트팜 4개동 총 3536㎡으로 조성했다.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4명을 선발해 창농 지식과 스마트팜 운영관리, 경영·컨설팅 등 기초부터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지난달부터 최대 2년간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다.

양희열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형 광주 농민의 특성에 맞춰 드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반응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타 지역과는 차별화한 광주 농민을 위한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드론 운행과 청년 창업농 지원 등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드론 방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드론 조종자격 중 공중 무인 약제 살포가 가능한 자격인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7kg~25kg) 조종자격 취득과정이 이뤄지며, 필기시험, 비행경력(10시간), 실기시험 등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론과 실기교육을 수료하고 최종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일부(50% 이내)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귀농 희망인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접수자 중 10명을 선정해 교육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마당-교육안내에 기재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농업기술센터는 또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에 참여한 청년창업농의 '2021년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장터' 참가도 지원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와

투자유치 협력 업무협약

지난 1월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5일 광주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코트라(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투자유치 사절단과 전담팀 파견,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홍보 활동, 잠재 투자자 발굴, 교육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코트라 36개 해외 투자 거점 무역관을 활용해 광주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등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광주 특화 분야에 첨단 외국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설립된 국가 투자유치 기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